

디모데 후서 1-2
Tape #C2617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to second Timothy? This is the last epistle that Paul wrote. He is again in prison in Rome. It would seem that he was released from the first imprisonment and allowed a little more time of liberty to preach the Gospel. And putting together from the various epistles and from the book of Acts, it would seem that he went to Miletus and then on over to Corinth and to Troas, probably to Ephesus, and then on back where he was arrested and taken back to Rome.

이제 디모데후서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그는 로마의 감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감금에서 그가 풀려났을 때, 그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 그가 밀레도와 고린도를 거쳐 드로아까지, 아마 에베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Paul realizes that the situation is now changed in Rome. He realizes that the sentence of death is upon him. He knows that his time is very short, that he will soon be executed by Nero for his faith in Jesus Christ. And so realizing that his execution is only a matter of time, Paul writes his final letter to Timothy, his son in the faith. This young man that Paul had discipled and spent so much time with to invest in Timothy's life so that he could carry on the work of Paul once he was gone.

바울은 로마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사형선고가 바로 자신에게 내려질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네로 황제에 의해 곧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처형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그의 일을 지속하도록 하기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디모데를 제자로 만들었고 그의 생활에 바울 자신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So Paul now is writing his final epistle, this is the last of Paul's epistles. Shortly after this, he was beheaded there on the Appian Way just outside of Rome.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서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는 로마 근교의 아피아 가도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So, (1절)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which is in Christ Jesus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1:1),

You see, the sentence of death is now hanging on him. So what's he talk about? Life in Christ Jesus, that eternal life. Jesus said, "Don't be afraid of those who can kill your body, and after that they don't have any power" (Matthew 10:28). And so as Paul is writing with the sentence of death upon him, knowing that his execution is only a matter

of time, it is interesting how he writes about life. I'm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not of death but "of life which is in Christ Jesus."

자 보십시오. 죽음의 형벌이 이제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지금 자신의 처형이 시간 문제요 죽음이 코 앞에 까지 이른 마당에 그는 생명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죽음으로 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John tells us,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at life is in the Son. And he who has the Son has life" (1 John 5:11).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that is in Christ Jesus." Oh thank God, even with the sentence of death hanging over us, we can talk about life, that eternal life, that age-abiding life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When the rich young ruler came to Jesus and fell there at His feet, he said, "Good Mast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inherit this age-abiding life" (Matthew 19:16)? He saw in Christ that quality of life and he desired it, that quality of life that is ours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He who has the Son has life."

사도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요일 5:1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을 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영생을 얘기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느날 젊은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그 발아래 꿇어 앉아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적인 삶을 보아쓰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 질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2절을 봅니다.

To Timothy, my dearly beloved son (1: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1:2):

Notice the endearing terms of Paul now towards Timothy as he realizes this is probably the last time I'm going to write, be able to write to him "my dearly beloved son." And so there's a lot of emotion, a lot of pathos in this second letter to Timothy because of the background of this whole epistle.

이제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쓸수있는 마지막 편지가 될것을 깨달음에 따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는 용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쓴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편지를 쓰는 배후의 사정 때문에 디모데에게 쓰는 두번째 편지에는 많은 감정과 비애가 들어 있습니다.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1:2).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1:2).

These beautiful gifts of God: His grace, His mercy, His peace.

그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3절,

I thank God, whom I serve from my forefathers with a pure conscience, that without ceasing I have remembrance of you in my prayers night and day (1:3);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1:3);

The men that God uses are men of prayer. Paul is constantly in his epistles referring to his prayer life. He was a man who lived and slept and breathed prayer. He lived in close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Jesus Christ, and so is the case with those men that God uses, they are men of prayer. And here Paul speaks about his praying for Timothy without ceasing night and day, because Paul realized that if the ministry of the Word was to be carried on in truth, really the heavy burden was going to be upon Timothy once Paul left. When Paul sent Timothy to the church in Philippi, he said, “I have sent unto you my beloved son Timothy because I don’t have anyone else who is likeminded as I am, who really has you at his heart” (Philippians 2:19-20).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하여 그의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쉬우고, 잠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울이 떠나면 디모데에게 남겨 질 말씀의 사역은 온전한 진리 안에서 전해져야 함으로 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 2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로 파송할 때, 말하길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 고 했습니다.

Timothy was one that had really modeled his life after Paul. Paul could say, hey, this young man has caught the vision. This young man knows my heart. And so he realized that Timothy was going to be the natural one to carry on that same ministry of the grace of God to the people. And that is no doubt why Paul invested so much time in prayer for Timothy, night and day. Oh Lord, he’s a young man. Lord, he doesn’t have the background and the experience but God, use him, help him, bless him, Lord. Oh, wouldn’t you love to have Paul praying for you night and day?

디모데는 바울을 본 받아 참으로 모범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지요. “ 이 젊은이를 보게. 이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야, 또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한 사람이야” 바울은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예 밤낮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오 주님, 이 사람은 그저 젊은 청년입니다. 어떤 배경도, 경험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용하소서, 그를 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해 준다면 좋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And Paul said,

I greatly desire to see you, because I remember your tears (1: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1:4),

No doubt the last time Paul had seen Timothy there at Ephesus and had to leave him, Timothy was crying, probably wanted to go with Paul. Paul, they believed, was arrested in Ephesus at this time when the Roman church began to, I mean the Roman government began to persecute the church again. And probably as they bound Paul to take him back to Rome, as he said his farewell to Timothy, Timothy was just weeping and sobbing. And yet it was necessary that he stay and establish those brethren in the church of Ephesus, which were being harassed by the false teachers that had come in. And so Timothy, weeping; and Paul had vividly in his mind this beloved co-laborer, his son in the Lord, he had in his mind the tears as they were coming down Timothy's face. He said, Oh, I greatly desire to see you. I remember your tears and I love to see you.

디모데가 바울을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그를 떠나 보낼 때, 그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으며, 또 어쩌면 그와 함께 가기 원했음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교회를 다시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체포되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아마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려고 그를 묶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작별을 고했을 때 디모데는 슬피 울며 흐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었으므로 그가 아직 교회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슬픔에 가득 찬 얼굴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그의 마음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 아들 디모데야 정말 네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를 원하노라.”

4절

that I might be filled with joy (1:4);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1:4);

What a beautiful bond is created through Jesus Christ among men and among women. This family of God, it exceeds even our natural family. The bond that God creates in our hearts and in our lives for each other, that love that is there. Paul sai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들 사이와 자매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끈이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을 능가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서로를 위한 것이고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I call to remembrance the unfeigned faith (1: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1:5)

Or the pure faith.

that is in you, which dwelt first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is also in you (1:5).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1:5).

So he came from a good line, you know, a godly heritage. What a blessing it is. What a blessing to have a godly grandmother. What a blessing to have a godly mother, the faith that was in my grandmother, the faith that was in my mother, the faith that God has planted in my heart.

디모데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신앙의 할머니를 모신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며 그 믿음은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You know, it's an interesting thing my grandmother was a very special woman. She lived in Santa Barbara and the pastor that came to the church there was just a young man, he wasn't married yet. And so she used to go with him on his calls so that there would be no questions in the minds of people if he called on some of the young wives or whatever, my grandmother was always with him and made his calls with him. She lived a life dedicated to the Lord, to serve the Lord. That was the whole passion of her life was to serve the Lord.

우리 할머니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산타바바라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다시시던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이 나지 않도록 목사님의 연락이 오면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해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께 헌신 된 삶을 사셨고 또 주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모든 열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When she was in the hospital dying of cancer, they were short of nurses and so she would get up and go around and take bed pans to people and took care of them and waited on people there in the hospital because that was her life, just service. It was a life of service to God and a trust in God.

할머니가 암의 말기로 병원에 계셨을 때, 당시에는 간호사들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어나 각 침대를 두루 다니시며 병자들과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I recently found out that inscribed on her tombstone are the words "Jesus never fails." And that was just the story of her life; it was a life of faith in the Lord. And so the family members, because that was just, was sort of the hallmark of her life, "Jesus never fails," they put that on her tombstone. I didn't know that, but over in Fairhaven here in Santa Ana on my mother's tombstone, we have placed "Jesus never fails," because the faith that was in my grandmother was passed down to my mother.

최근에 나는 할머니의 묘비에 "예수께 실패는 없다"라는 글이 새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이며 또한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께 실패는 없다"란 말이 할머니의 삶을 한 마디로 함축한 가장 적절한 글이라 생각해서 그분의 비석에 새겨 넣어 드린 것입니다. 또 이곳 산타아나에 있는 웨어 해븐에 있는 나의 어머니의 비명에도 "예수께 실패는 없다"라는 똑같은 말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나의 어머니에게 전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I could remember from a child, my younger brother had asthma. And when he would have his attacks and start wheezing, couldn't sleep, we had an old rocking chair that creaked. And as a little child, I could remember lying in bed hearing my brother wheeze, you know, that asthmatic wheeze that you know, it has a unique sound to it, and I could hear that. I could hear the creaking rocking chair out in the other room and I could hear my mother singing Jesus Never Fails. Jesus never fails. Heaven and earth may pass away but Jesus never fails. And I would go to sleep hearing her rock my brother during his asthmatic attacks singing of the unfailing grace of Jesus Christ. Whenever we were sick, she would come in and sing to us, Jesus Never Fails. My brother was healed of asthma; the Lord didn't fail. And all through our life the Lord has taken care of us. The Lord didn't fail.

내가 기억하기로 나의 남동생은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앓았습니다. 그에게 천식이 와서 시큰거리기 시작할 때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이상하고 거슬렸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 내 동생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 우리 집 다른 방에 있던 삐걱거리는 흔들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힘들어 할 때면 그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 예수님께 실패란 없지 .. 예수님께 실패란 없지.. 하늘과 땅이 없어 진다 해도 예수님께 실패는 없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은혜를 노래하는 어머니의 찬양과 동생의 찬식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 들곤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우리에게 오셔서 “ 예수님께 실패는 없다”는 그 노래를 불러 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실패는 없다는 찬양대로 나의 동생은 찬식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And so because this was so much a part of her life, without knowing it was on my grandmother's tombstone, we had it put on her tombstone over here in Santa Ana. And so there in the cemetery in Montecito you'll find a gravestone of my grandmother's that says, "Jesus never fails". Over here in Fairhaven you'll find my mother's gravestone that says, "Jesus never fails," the faith that came from my grandmother to my mother and now passed on to us and we, of course, passing it on to our sons and now they, too, their sons and grandchildren and all. Oh how glorious it is the heritage that is ours in the Lord and in the things of the Spirit and it's just, it's just a beautiful thing.

할머니의 묘비에 그 말이 새겨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었지만, 어머니의 삶이 진실로 그러했기에 우리는 산타아나에 있는 어머니의 묘비에 그 믿음의 말을 새겨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몬테치토 공동묘지에 있는 할머니의 묘비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기 웨어해븐에 가면 우리 어머니의 묘비에도 “ 예수님께 실패란 없다” 라고 쓰인 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할머니로부터 우리 어머니께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로 전해져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과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니까요.

Paul said I know the faith that was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also in your mother Eunice and I know it's in you. Oh, the greatest thing that we can offer and give to our children is this heritage of trusting God in faith. How important that we pass it on.

바울은 말하기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스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안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자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것입니다.

Wherefore I put thee in remembrance that you stir up the gift of God, that is in thee by the putting on of my hands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1:6).

Now Paul has a couple of times already made reference to this. When Timothy was a young man and began to join Paul in the ministry there in Lystra, the elders laid hands on Timothy and prayed for him. And as they did, the Lord gave to Paul a word of prophecy in which the Lord spoke to Timothy, telling him the gifts that the Lord was giving to him and outlining somewhat the ministry that Timothy was to fulfill. And Paul has made mention before of this experience that Timothy had when the elders laid hands on him and he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the gifts of the Spirit and the word of prophecy directing his life and his ministry. And so Paul said, remember and stir up the

gift that is in you that you received when the hands were laid upon you and the gift of prophecy was exercised.

이 말은 바울이 벌써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어릴 적, 루스드라로 가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을 때,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디모데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것들과 디모데가 성취해야 할 사역에 관한 어느 정도의 윤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받은 성령과 은사, 그리고 그의 사역과 삶의 방향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관한 과거의 경험을 상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안에 하나님이 이미 두신 은사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불일 듯이 일으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It is possible for us to neglect the gifts of God within our lives, but God did not give us these gifts to be neglected. He gave us these gifts to be used. And so Paul’s exhortation to Timothy, “Stir up that gift that is in you,” begin to exercise it again. By faith, begin to exercise again that gift of the Spirit that God has given unto you.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사들을 소홀히 여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소홀히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권면은 “너의 안에 있는 그 은사를 일으키라” 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의 은사들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For God has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1:7);

Now evidently, Timothy became a little fearful in the exercise of this gift. And I think that that is a tool that Satan often uses to discourage our exercises of the gifts of the Spirit. Fear. I don’t know what people are going to think, you know, if I say that to them. And we have this fear that many times restricts us from the exercise of gifts. But “God hasn’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 우리를 제한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but of power, love, and a sound mind (1:7).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1:7).

Spirit of power. Oh, thank God, the spirit of love, how important, and a sound mind.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So,

Be not thou therefore ashamed of the testimony of our Lord, nor of me his prisoner: but be thou a partaker of the afflictions of the gospel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1: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8);

Now there are a lot of situations where we can just keep our mouths shut and stay out of trouble when we really ought to be opening our mouths and getting into trouble. You know, when people are saying blasphemous things we can just keep our mouth shut and sort of shrug and say, you know, poor stupid soul. Or we can say to them, Do you realize what you are saying? What a filthy mouth you have! Doesn't it bother you to have such a filthy mind and mouth?

때때로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 어려움을 겪게 될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 어려움을 피할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할때 입을 꼭 다물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가련하고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이런 지저분한 입 놀림을 하다니! .그렇게 더러운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 보죠?”

I've often said to people when they are using the name of Jesus in a blasphemous way, Hey, that hurts me. You're talking about a man who I love more than anyone else, who died to save me from my sins, and it hurts me to hear you talk about Him that way. Hey. They sometimes get upset and they, you know, look like, Who do you think you are, you know, and all that kind of stuff. But yet Paul tells Timothy that "God has given us the power of the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a sound mind." Therefore, don't be ashamed of our Lord but be a partaker of the afflictions of the gospel, we'll get to a little bit, "They who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2 Timothy 3:12). The promise in the Bible that I hate the most.

나는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건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이군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구 보다 사랑하는 분이예요. 그 분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겐 아주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때때로 그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 네가 뭔데’ 하는 시선으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고,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들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9절을 봅시다.

The power of God; Who hath saved us, and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world began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9),

So God who called us and saved us, but it wasn't according to our works. We are not saved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God.

Now this was the message that Paul was proclaiming and the message that was being perverted by the legalism that was creeping into the church. Now remember that Timothy was ministering there in Ephesus, to the church in Ephesus. And already there were those seeds of legalism that had taken root and were beginning to turn the people away from the glorious gospel of grace that Paul had proclaimed. And Paul speaks to Timothy of his concern that they were turning away from the grace of God, and for him to establish them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오는 율법주의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 곳 에베소 교회는 이미 율법주의가 기승하여 뿌리를 내림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염려하던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세우라고 말합니다.

A few years later Jesus wrote a letter to Ephesus and all was not well within the church. In fact, Jesus called the church of Ephesus to repentance and He said unless you repent I will remove My presence from you. They had come to the place where their whole religion was a works thing, because the Lord said, I know thy works, thy labor and so forth, and thy works. They had come to a leg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y had come to a salvation based upon works. “Who saved us, and called us,” Paul said,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world began.”

여러 해가 지난후 예수께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노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행위를 기초로 하려는데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Now the result of a legal relationship to the Lord is really the loss of relationship because Jesus doesn't want a legal relationship with you. He desires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e wants you to relate to Him in love. And so He said to Ephesus, “You've left your first love”(Rev. 2:4). You've got all these works, man, you got this whole thing going all kinds of works, but I have this against you, because you've left your first love. I don't want a legal relationship with you. I want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의 결과는 참으로 관계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는 당신과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계 2:4).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하였고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중 이지만, 너희를 책망할것이 있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너희들과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사랑의 관계니라.”

And tonight Jesus is looking for a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e's not interested in all of these little rules and regulations and keeping your works up. He's interested in your just loving Him supremely, this loving relationship. “I have this against you, you've left

your first love. Now remember from whence you ar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 over” (Revelation 2:4-5). That is, the works that were motivated and prompted by love. “Or else, I will move the candlestick out of his place.” Where was the place of the candlestick? Jesus was walking in the midst. So Jesus is saying, I’ll take my presence from your midst if you try to have a legal relationship with Me. That’s not what I want, I want love relationship.

오늘 밤 예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규칙이나 조항들을 세우시거나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의 성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그분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처음 행위란 사랑을 동기로 시작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4,5). 촛대가 있었던 곳이 어딴지?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와 율법적인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나는 네 가운데서 떠날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노라.”

And so Paul is encouraging him, in the grace God has called us, with this holy calling. But God didn’t call you because of your works or because you were deserving or worthy of it, but just to accomplish His purposes of love and of grace which was given us in Christ before the world began. “

바울이 디모테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But it is now made manifest by the appearing of Jesus Christ (1:10)

그러나 이제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1:10)

God has always loved us but the love was manifested.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You se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earth shows his handiwork. Day unto day they utter their speech” (Psalm 19:1,2). I have no argument with the man who says, God speaks to me in nature. God speaks to me in nature. And how I love for God to speak to me through nature. How I love to walk along the beach. How I love to get into the surf. How I love to watch a beautiful sunset. How I love to sit under the stars out in the desert and just look up into the heavens and the vastness of the galaxies and all. How I love to see the raging streams. I love Yosemite. I love nature. God speaks to me through nature. I have no argument. The Bible says that God speaks to you through nature. “Day unto day they utter their speech. Night unto night their voice goes forth. There isn’t a speech or a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n’t heard.” Yes, I believe that God can speak to you when you go out to the desert. When you go up to the mountains. When you take a Sunday off and just go out among nature and just enjoy the beauty of God’s creation. I believe that God speaks to you there. I have no argument with that.

시편 기자는 기록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 라고 말합니다 (시편

19:1-2). 나는, ‘하나님이 자연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에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해변을 거닐기를 좋아합니다. 파도를 타는 것도 좋아하지요. 또 해 지는 것을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막에서 쏟아져 내리는 별들 아래 앉아 하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면 광대한 은하수와 그 온갖 것들을 감상하는 기분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힘차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세미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나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나는 여러분이 저 사막가운데 나가거나 혹은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일날에 날을 정해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But what nature cannot and does not tell you is how much God loves you. It took more than nature to reveal that. It took Jesus Christ. It is interesting that whenever God wants to show you His love or to prove His love to you, He always points to the cross. And so God who loved us before the world ever existed, but has manifested it by the appearing of our Savior Jesus Christ.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줄수도 없고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계시하려면 자연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는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입증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who has abolished death and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1:10),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지라 (1:10),

Now here Paul got the death sentence. Nero says, you know, death sentence is upon him, but Paul says God has abolished death. Oh, thank God for the life that is ours.

이미 바울은 사형선고를 받았습시다. 네로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음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인해 감사합니다.

The Christian does not die. It is wrong to say of a child of God he died. The Christian does not die. Paul the apostle said “we know that when the earthly tent of our body is dissolved,” when my body goes back to dust, decomposes and goes back to dust, I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in these tent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move out of this old tent: not to be un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a new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ese bodie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1-8).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몸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몸은 썩어져 먼지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 이 육신에 거하며 쫓겨대던 우리 몸은 이 오래된 몸을 벗어나고자 애쓰며 실체가 없는 영혼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새 옷으로 덧입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몸에 거하는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 있었지만, 이제 원하는 것은 이 몸에 거하기 보다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후 5장 1-8절)

So when a Christian dies, rather than saying, Oh, he died last week, we should say, Oh, he moved last week. Have you seen John lately? Oh, didn't you know, he moved into a beautiful mansion. He's no longer living in that old tent. "Who has abolished death, and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아, 그 사람 지난 주에 죽었어'. 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 친구 지난 주에 옮겨 갔지. 아마 아주 근사한 집으로 갔을 걸. 하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Jesus said to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Yes, Lord, I know on the last day he's going to rise. No,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m here now, and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you'll never die". He said,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That's the Gospel. That's the good news that we have to proclaim. The Lord has abolished death. He who lives and believes shall never die. Oh, move, yes. That's important and that's desirable. I wouldn't want to live in this dumb, old tent forever.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 예.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 것이고, □□ □□□ □□ □□ □□□ □□ □□□□□ □□□ □□□□?" 라고 하셨습니다.(요 11:25,26)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폐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옮겨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사모할 만한 것이지요. 나는 이 낡고 지독한 장막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Everyday I live the Lord is making it just a little bit easier, more desirable to move. I'm getting aches and creaks that I've never had before. I've had the most difficult time walking across the floor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I mean, it takes awhile now to get warmed up. My feet just kill me in the morning, especially after a few sets of tennis. Not a funny thing, it's miserable, growing old. The old tent slowly dissolving, but I have a building of God for God has abolished death and brought us life and immortality.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장차 옮겨 가야할 곳을 더욱 갈망하게 하며, 또 조금씩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나는 점점 아픈 곳이 늘어나고 또 전에 없이 빠걱거리는 곳이 많아집니다. 한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 지나가는 일조차도 내겐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다 테니스라도 친 다음날 아침이면 발에서 힘든 통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오래된 장막이 점점 스러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폐하시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장막을 가졌습니다.

Whereunto [he said] I am appointed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of the Gentiles (1: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The three things that Paul was called to do. He was a preacher, he was an apostle, he was a teacher. Preaching is ordained by God to bring the unbeliever to a faith in Jesus Christ. Preaching is not for the Christian or the saint or the church, preaching is for the unregenerate. For in the preaching, I am proclaiming to the unregenerate God's good news to man. You don't have to go on in sin and die in your sin and trespasses. You can have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Repent;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that's preaching.

바울은 세가지 직임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자란 믿는 자나 혹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주를 따르지 않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가운데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 역시 설교자로써의 사명을 좇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빠지거나 또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회개; 우리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Teaching is what the church needs. Now the weakness of the church today is that there is too much preaching and not enough teaching in the church. The church has been preached almost to death, and what the church needs is teaching. Teaching us how to walk, teaching us how to grow, teaching us how to develop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That's what the church needs, the teaching of the Word, and that's where the church is failing in a real teaching ministry. So Paul had a combination of a preaching and a teaching ministry, called as an apostle.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너무 많이 가르치려 하거나 혹은 가르침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하며 또 거의 죽기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관계가 발전해 갈수 있는지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실패하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으로써 가르치는 일과 반포자의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12절 말씀.

For the which cause [he said] I also suffer these things:
nevertheless (1:12)

□□ □□□ □□ □ □ □□□ □□

These things you know, I'm in prison, I've been sentenced to death and it's because of my teaching and preaching that I'm here in prison. Nevertheless, he said,

이 말씀의 뜻은; 그가 가르치는 일로 또한 진리를 반포하는 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1:12),
□□□□□□ □□□□ □□ □□□ □□ □□ □□ - 라고 말합니다.

Now notice, he didn't say I know what I believe. Now there's a lot of people today say, Well I know what I believe. You know, I believe in the Orthodoxy. I believe in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and they know what they believe. But it's not what you believe or in what you believe but it's in whom you believe that's important.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가 믿는것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지 않는것에 유의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뭘 믿는지 알아' 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신경도 믿고 또 신앙의 정통을 믿는다' 이 말은 그들이 무얼 믿는지 그들이 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혹은 무엇을 의뢰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의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 12절을 계속합니다.

and I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1:12).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12).

I have committed my life to Him. I am persuaded He's able to keep it.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Correct orthodoxy is important, but a Creed can't save you, only Jesus Christ can save you. It's not belief in a system. It's not belief in a religion. It's not belief in a doctrinal position. It's belief in a person that brings salvation. It's the belief in Jesus Christ. And so we know, we need to know in whom we have believed.

나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 분이 그것을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그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통교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종교나,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믿는것이 구원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aul said, "I'm persuaded He'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That word "I have committed" in the Greek is an interesting word. It's a word that is used for making a bank deposit. I've entrusted it. So I've entrusted my life to Him. He's able to keep it. Nero may take my head off but He's going to keep my life because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I am persuaded He's able to keep me.

바울은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했으며 그 분이 그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말로 '내가 의탁했다' 란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위탁했다는 뜻으로 내 삶이 그분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로왕은 그의 머리를 잘라 참수해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믿는 그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Hold fast that form of sound words, which you have heard of me, in faith and love which is in Christ Jesus (1: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13),

As these false teachers were beginning to come along. And you remember Paul in his last recorded visit in the book of Acts, with the elders of Ephesus, as he had come to Miletus and he had sent a message to the elders in Ephesus to meet him in Miletus because he was in a hurry to get back to Jerusalem, wanted to get back there before the feast, that he might take the offering back to the church in Jerusalem that he had collected among the Gentile churches. And so they met him on the beach, the ship was offshore waiting for Paul. And he was talking with the elders of the church of Ephesus. He said I'm going to Jerusalem.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All I know is everywhere I'm going, the Spirit's warning me I'm going to be bound and so forth. Beyond that, I really don't know, the Lord hasn't shown me.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방문한 것을 기억하시겠죠. 이 거짓 선생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가 밀레도에 왔을 그 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기를 청하자 그들이 밀레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서둘렀던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 중에 자신이 소집한 교회들에게 그 동안 모금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오순절 축제 전에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에서 만났고 배는 바울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경고하시는 것뿐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I want you to bear record, that night and day I bore faithful witness of Jesus Christ as I lived among you and I told you and I showed you the things of the Lord. Now he said I know that after I depart, grievous wolves are going to come in not really with pure motives. They're not going to spare the flock of God. They're going to bring in these pernicious doctrines. And even from your own midst, men are going to rise up and trying to draw men after themselves, trying to create little factious groups. And Paul was weeping. He said I know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I can't stop it. But he encouraged them to the faithfulness of the Word and the faithfulness of the teaching that he had given to them.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면서 밤낮으로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신실한 증거를했고 주님께 관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해 주었고 또한 보여 주었던 것을 기록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너희를 괴롭히는 흉악한 이리가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러한 파괴적인 교리를 가지고 오리라. 심지어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작은당을 지으리라. 바울은 울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일이 일어날줄을 알았노라. 그러나 어쩔수 없어.” 그리고 바울은 그가 저희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하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Well, it was true. After Paul left, these men did come in. And so as Timothy is there and trying to buck these doctrines that are raising up their ugly heads within the church of Ephesus and these men who are trying to create these little divisions by getting these weird doctrines and espousing some strange thing and all. Paul says, “hold fast that form of sound doctrine or words which you have heard of me.”

이 말씀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기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심술궂은 머리를 치드는 이러한 교리들과 이상한 교리를가지고 와서 이 이상한 것들을 권장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바 바른 말씀을 굳게 잡으라.” 14절로 이어집니다.

That good thing which was committed unto you keep by the Holy Spirit which dwells in us. For this you know, that all of they which are in Asia have turned away from me; of whom are Phygellus and Hermogenes (1:14-15).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14-15).

That is, the truth, the word of God.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합니다.

Those in Asia had now turned their backs upon Paul. He was no longer able to be a strong influence there. They didn't have to fear him come in apostolic power to correct their false doctrines anymore and they were becoming emboldened in their heresies and in the drawing of people after themselves. Paul names a couple of them, "they've turned away from me". What a sad thing. Paul was really pretty much forsaken now. With the sentence of death upon him, even Dimas who had been a companion for so long had forsaken him. Others have fled. Luke only was remaining with him there in Rome, but there was one faithful brother, Onesiphorus.

당시에 아시아는 이미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려는 사도의 권위를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 사람들을 자기쪽 이단으로 끌어들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두어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은 나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데다가,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디마 마저도 그를 저버렸고 다른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그와 함께 로마에 남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신실한 형제, 오네시보로를 만나게 됩니다. 16절,

The Lord gives mercy unto the house of Onesiphorus; for he often refreshed me, and was not ashamed of my chains (1:16):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1:16):

Paul was chained there in a dungeon in Rome and Onesiphorus went to Rome and searched through dungeon after dungeon until he finally found Paul and there ministered to him and encouraged him.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었을 때, 로마에 오게 된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가서 바울을 찾기 까지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다니면서 그를 찾을 때 까지 수소문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그를 도와고 격려하였습니다.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But, when he was in Rome, he sought me out very diligently, and he found me. And the Lord grant unto him that he may find mercy of the Lord in that day: and in how many things he ministered unto me at Ephesus, you know very well (1:17-18).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1:17-18).

So this Onesiphorus had been just a blessed man and had ministered to Paul while Paul was in Ephesus and then came to Rome and searched until he found him and there ministered to him. Paul praised God's mercy and blessing upon him for it.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섬겨왔던 사람으로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자 로마로 와서 바울을 만날때까지 살살히 뒤졌습니다. 바울을 찾아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섬김에 대하여 오네시보로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2장 1절을 들어갑시다.

Thou therefore,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2: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1)

You see, it is legalism that is threatening the church. This idea that you can work yourself into divine favor. So “be strong in the grace”

보시다시피,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2절 말씀을 계속합니다.

that is in Christ Jesus. And the things that you have heard of me among many witnesses,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2:1-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1-2).

And so this is how the Gospel is spread. As Paul said, Now you remember the things that I said and I was teaching among many of the brethren. Now you take these same things and commit them to faithful brethren who will be able to teach others, the discipling of men in the truths of God, investing your lives in others. As we have grown older we’ve sought to invest our lives into younger ministers, sharing with them, spending time with them, teaching them, committing to them the Word of God, in order that they might then go out and give the same thing to faithful men, who will then be able to go out and teach others.

복음이 바로 이렇게 전파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말했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고 했습니다. 이제 네가 꼭 같은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제자를 삼는 것이며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여 그들과 삶을 나누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아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며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When we started our ministry here at Calvary Chapel, we met with a group of men and many times their wives five nights a week. For two years, the first two years, five nights a week we gathered together entrusting to these men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studying several books, going through the entire Bible with them. After two years with these men, I said, All right, the time has come; you fellows start teaching your own home Bible studies. And so they started teaching their Bible studies in their homes. I would every week get calls from them when they were going to have a Bible study that night; they’d have a list of questions that they’d go over before they went to their Bible study, they had their Bible studies in their homes.

이곳 갈보리 채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5일을 부부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2년 동안에는 우리는 함께 모여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2년 후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가르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각자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날마다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 가르칠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 나에게 매주일 전화를 하여 질문하곤 했습니다.

After two years many people who were saved in their Bible studies then started their own home Bible studies. And it was passed on and on and on from spiritual generation to spiritual generation. People who were saved in a Bible study began to teach a Bible study in which men were saved, who went out and later on began to teach their own Bible studies, and so it goes on and on. It is, as it is passed, you teach faithful men who are able then to teach others. You disciple others so that they in turn can disciple others. And so the progression goes.

그 후 또 2년 후에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세대로부터 또 다른 세대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된 것이죠. 성경공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도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Paul said,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3절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2: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2:3),

We're in a real battle, a tough battle. It's a battle of the eternal destiny of human soul. It's a fierce battle. The enemy is relentless. He attacks night and day. He never eases. The pressure is great. "Endure hardness," Paul said, "as a good soldier". Hang in there.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 그것도 아주 거친 전쟁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입니다. 대단히 격렬한 싸움이며 우리의 대적은 아주 잔인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옴으로 대단한 압박감을 받습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좋은 군사로써 심한 고난을 견뎌내라' 계속해서 4절 말씀.

And no man that wars entangles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2:4);

□□□ □□□ □□ □□ □□□□ □□ □□□ □□□ (2:4);

And that's our problem so often. As Jesus said, "In the last days, be careful lest you at any time be overcharged with gluttony, surfeiting, or with drunkenness, or the cares of this life so that the day of the coming of the Lord will catch you by surprise" (Luke 21:34). Catch you unaware. Jesus in talking about how that the thorns grew up with the wheat. Identifying the thorns, He said the desire for riches, the cares of this life and the desires of other things choke out the fruitfulness of the Gospel within their life. So the cares of this life can choke out the fruitfulness. No man who is in war, no man who has signed up for the army gets all involved in the little mundane things of life. Hey, I'm in a battle and I can't get bogged down with the cares of this life.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 □□□ □□□□ □□□ □□□□ □ □□□ □□□ □□□ □□□□ □□□ □ □□ □□ □□□□ □□□□" 고 하셨습니다 (눅21:34). 여러분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시나무와 밀이 함께 자라는가를 말씀하시며, 여기서 가시란, 인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을 결실치 못하게 막는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임한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 자기 생활의 작은 일들에 억매어 있습니다. 나도 전쟁에 있으며 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을수는 없습니다. 4절 후반절

please him who has chosen me to be his soldier (2:4).

□□ □□□ □□□ □□ □□□ □□ □□□ (2:4).

My desire is that I might ;

이것이 바로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You see, I have made a commitment unto the commanding general that I will serve, that I would go into battle, that I am on-call. Anytime he can give an order for me to move out, must be ready to go. I want to please Him who has called me to be His soldier. That's the whole desire of my life, to please God who has called me into this warfare.

나는 나의 섬기는 사령관에게 명령을 받는 즉시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이미 서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가 내게 호출 명령을 내릴수 있으므로 나는 뛰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당신의 군사로 부르신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나를 이 전투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Also if any man strive for the masteries is not crowned, unless he strive lawfully (2: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2:5),

Now Paul was referring here to the Olympics and the wrestling competition within the Olympics. And the wrestling competition in those days was called striving for the masteries, striving to master over another one. Throw him out of the ring. Pin him on his back. He who “strives for the masteries,”

You see, the referee can blow the whistle on you and say, Hey, hey, that was not right, you know, you hit him after I called “Break.” You’re not crowned unless you strive lawfully. There are the rules by which you must wrestle.

이제 바울은 씨름을 벌이는 올림픽 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벌어지던 씨름은, 누구든지 상대를 먼저 링 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그의 등뒤에서 그를 꼼짝 못하게 붙잡으면 경기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경고합니다. ‘이봐, 이긴 반칙이야. 내가 분명히 “공격 그만” 이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이 사람을 계속 때렸지. 당신은 경기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챔피언이 될 수가 없소.’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따르는 것입니다. 6절

The husbandman that laboureth (2: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2:6)

The man who is out there in the field laboring gets the first fruit of harvest. You are able to eat while you are in the field working, picking the fruit. You could eat the fruit.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 때,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He's the first partaker of the fruits. Consider what I say; and may the Lord give you understanding in all of these things. Remember that Jesus Christ of the seed of David was raised from the dead according to my gospel (2:6-8):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2:6-8):

This is the heart of the Gospel,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Don't forget that. Remember the resurrection, without that we have no gospel. And so he's encouraging him to come back to the heart of the Gospel. And you find that everywhere they went the center message, the thing that made Christianity different from Buddhism or Confucianism or any other religious system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So he's reminding him of that unique Confucianism difference in Christianity.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 오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종교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 혹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디모테에게 상기 시킵니다.

Wherein [he said] I suffer trouble, as an evil doer, even unto these bonds [these chains]; but [thank God] the word of God isn't bound Therefore I endure all things for the elect's sakes, that they may also obtain the salva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2:9-10).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2:9-10).

They can bind me, they can bind my arms to the soldier next to me, to this guard, but they can't bind the word of God. So I endure these things because God has elected certain people to be saved. And if by my sacrifice, by my commitment, I can bring them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great. My desire is to see the salva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that they might share the eternal glory of a child of God.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군인들은 나의 팔과 몸은 결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참음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직 나의 바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영광을 나눌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이 보게하는것입니다.

So in another place he said, "I know that the present suffering isn'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shall be revealed when Christ comes" (Romans 8:18). Oh yeah, it's hard now. Yeah, it's tough. Yeah, it's not easy. There's suffering, but it can't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e eternal glory. So he said, Our light affliction. Light affliction, Paul? You see, you say once you were stoned, three times you were beaten with rods, three times you received thirty-nine stripes, you were shipwrecked, you were beat up, you were imprisoned, how many times? Light affliction, Paul?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worketh an exceeding eternal weight of glory" (2 Corinthians 4:17). Interesting contrast: light affliction for a moment, eternal weight of glory. So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Don't get all entangled in worldly things. Seek to please the One who has called you to be a good soldier.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롬 8:18). 사실 그것은 정말 힘겹고 고달프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앞으로 닥아 올 영원한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가벼운 환난’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것이 경한 환난이 라고요?” 당신이 말하시기를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사십에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파선하는데서 지냈으며, 매를 맞았으며, 옥에 갇히기도 한것이 몇번 이었던가? 바울 선생님, 그것이 경한 환난이 라고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고후 4:17). 재미있는 대조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러므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이기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에 억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They're going to take my life pretty soon, but that is this physical life, but I'm going to be living with Him.

그들은 내 생명을 앗아 가겠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일 뿐이요, 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It's a faithful saying [it's a true saying]: If we be dead with him, we shall also live with him.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if we deny, he also will deny: If we believe not, he abides faithful: he cannot abide deny himself (2:11-13).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 쟈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2:11-13).

There are some people who say rather pompously, Well I just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So what? You see, your believing or not believing doesn't alter the facts one iota. You may deny Him but He can't deny Himself. That would be impossible to deny your own existence. So your saying I don't believe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is like saying, I don't believe that two and two equals four. I just look at you and think you're a little nuts, but that's all right, you have your right to be but you don't change the facts. Your believing or not believing doesn't alter the fact at all.

어떤 거만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믿건 안 믿건 조금도 달라 지지 않아.” 당신은 그분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 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당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2+2가 4라는 것을 믿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될 권리는 있겠지만, 사실 자체는 바꿀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던 안 믿던,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The fact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that He did die for our sins, is a fact that remains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You see, your believing or not doesn't affect Him at all. It does affect you seriously and for eternity. And so it is rather ridiculous to say, Well I don't believe, and to think that it doesn't exist just because you don't believe

it. You can deny the truth but He can't deny it. He can't deny Himself, what He is and what He has done. So if we don't believe, it's still true. He can't deny Himself.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원한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 '난 믿지않아 내가 믿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가 어떠하신 분이며 행하신 일을 부인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니까요. 14절을 봅시다.

So,

Of these things put them in remembrance, charging them before the Lord that they strive not about words to no profit, all they do is subvert the hearers (2:14).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2:14).

There are those that get all involved in words and in little concepts and twists, and all, of a scripture, and they are really totally unprofitable. Do you know that the church was divided once over an argument on how many angels could stand on a head of a pin? People used to argue over that. And people have all these concepts. Oh, it's stupid. That's not going to help anybody. And you look at a lot of these things that people bring up and a lot of divisions that are created. How were you baptized, brother? You know, and they well, you weren't really baptized then. And, You better be baptized the right way. You were baptized backwards? Oh no, that face down, man. That's the only way. And they get in these silly, little things and all, and all it does is subvert people, subvert the hearers.

어떤 사람들은 언쟁에 빠지거나 성경에 있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왜곡하여 서로 다투는데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작은 편 조각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서 있을 수 있는지 서로 논쟁하다가 교회가 두쪽으로 갈라진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그저 사람들이 제기한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많은 분열만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문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님? 형제님은 침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침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를 바르게 받아야지요. 뒤로 침례를 받으셨다구요? 이런, 앞으로 숙이셨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리석고 작은 일에 말려들게 하여 듣는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5절,

Study to show your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doesn't need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2:15).

□□ □□□ □□□ □□ □□□□ □□□□ □□ □□ □□□□ □□□ □□ □□□
□□□ □□ □□□□ □□□ (2:15).

This particular scripture was the inspiration to Scofield in setting out the dispensations in the Scofield Bible,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I think he went a little far with it. But it's interesting that this is the verse that inspired him to make the divisions, especially within the Scofield Bible as he shows you the dispensation of innocence, the dispensation of government, the dispensation of law, the dispensation of grace, and the dispensation of the future reign of Christ. The dispensations, rightly

dividing. But it is important that we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Study. It's important that we study.

이 특별한 성경 귀절은 스코필드라는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 시대적 구분을 중시하는 세대주의를 설명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해석이 조금 지나쳤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감을 준 이 말씀이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죄시대, 인류통치시대,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시대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시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물론 중요한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절 말씀.

But shun profane and vain babblings: for they will increase unto more ungodliness (2:16).

□□□□ □□ □□ □□□ □□□ □□□□ □□ □□□□□ (2:16).

There are those who turn the grace of God into a cloak to cover their own lasciviousness. Well, if God is so ready to forgive and so full of grace, it really doesn't matter if we do it because we can just ask Him immediately to forgive us then, and it would, He's graceful and it's all over. So let's go ahead and do it and then we'll seek the grace of God to forgive us. No, these kinds of vain and profane babblings only increase ungodliness.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음탕함을 은폐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워낙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얼 하든지 관계없이 그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는 즉시 우릴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렇게 해 보실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헛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은 악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Paul himself said, Shall we go out and sin freely then that grace may abound? Perish the thought! How can we who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The grace of God is not an excuse or a cloak or a reason to go out and just to live recklessly saying, well, the grace of God will cover me. Profane, vain babbling, be careful of it.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 □□ □□□ □□ □ □□□ □ □□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명하거나, 눈가림하거나, 밖에 나가서 무례히 살면서 '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것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허무하고 세속적인 말을 주의하십시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Their words will eat like a canker worm: of whom is Hymenaeus and Philetus (2:17);

□□ □□ □□ □□□ □□□□□ □□□ □ □□ □□□□□ □□□□ □□□□ (2:17);

I mean, Paul doesn't mind naming these fellows, does he? Paul, shame on you. I'm going to write you a letter.

Who concerning the truth have erred, saying that the resurrection is past already; and they overthrow the faith of some (2:18).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되었고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2:18).

Now the Jehovah Witnesses say the resurrection is already past and Jesus came again in 1914; didn't you know? Oh, but I thought every eye was going to see Him. Oh no, only those with spiritual eyes. Those who were living in the headquarters in, they saw Him, in New York spiritually, with spiritual eyes. And He set up His reign in a secret chamber and He is ruling now from this secret chamber through these men in New York. But we're in the Kingdom Age. Satan is bound. Glory to God.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은 1914년에 다시 오셨다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볼것으로 생각했어요. 오,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뉴욕에 있는 왕국회관 본부에 사는 사람들만 오직 영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다시 살아나셨고 비밀 장소에서 오직 뉴욕에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지시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탄은 결박되었으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Hey, if this is the Kingdom Age, I'm greatly disappointed. I was hoping for much better than this. I wish the Lord had not put such a long chain on him. He still has enough rope to give me a bad time. "Who have erred concerning the truth, saying that the resurrection has already taken place and they subvert the faith of many people." They're turning a lot of people away to this weird little doctrine of theirs, drawing a lot of people after this.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주장대로 천년 왕국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긴 사슬로 마귀를 묶어 놓았기 바랍니다. 마귀의 사슬이 너무 길어서 아직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말씀대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괴상하고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어 떠나 갔습니다.

Nevertheless the foundation of God stands, it stands sure, it has this seal, The Lord knows those that are his And, Let every one that names the name of Christ depart from iniquity (2: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2:19).

If you take the name of Christian, if you take the name of Christ, then depart from iniquity.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인이라는 호칭을 가졌다면, 또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떠나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But in a great house there are not only vessels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of earth [clay]; some to honour, some to dishonour (2: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20).

Paul here refers to the church as a great house. Jesus in the kingdom parables indicated that the church was going to become something God didn't intend it to be.

Those seven parables in Matthew's gospel, twelfth and thirteenth chapter, that deal with the Kingdom Age, talking about the church.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합니다. 천국비유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되어갈 것이라고 시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13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 비유는 천년 왕국시대의 교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It's like unto a mustard seed that's very small, but it was planted and it grew up into a great tree. Wait a minute. Mustard, you know they don't really have mustard trees, they have mustard bushes. If you've got a tree, you've got to have normal growth. And the birds or the fowls of the air came and lodged in it. The birds in the Scripture are always used in an evil sense. You remember the parable of the seed that fell by the wayside and the birds came and plucked it up. Now the birds were Satan who plucked the Word out that it couldn't take root. What's He saying, Satan's going to lodge in the branches of the church? Oh yes, he has found lodging within the branches of the church.

교회를 한 알의 겨자씨로 비유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자라게 되면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겨자라고 했지요. 그때 그들이 가진 것은 겨자 나무가 아니라 그저 겨자 나무 덩굴뿐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무를 하나 가졌다면, 그 나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새들은 언제나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들은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단이 교회의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가지들에 붙어 기생하는 것입니다.

There is more junk that comes ou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roclamations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proclamations than you can believe. "Concerning Hymenaeus and Philetus who have erred concerning the truth." Corrupt men of corrupt minds putting on a clerical garb, taking the title of Reverend and espousing every rotten cause that comes along, every damning issue that would demoralize and destroy our society, and these men are ready to take it up and champion it. And they're ready to fight against anything that is good.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세계 교회 협의회라던가 또는 국내 교회 협의회와 같은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기억하시죠? 진리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성직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직명을 얻고서 온갖 더럽고 썩어진 생각들을 받아들여 그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함으로 사회를 부패, 타락하게 만드는데 선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든 선한 것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A group of ministers filed a suit against President Reagan for proclaiming the Year of the Bible in 1983. Hey, wearing a backward collar doesn't make a minister out of anybody, only God ordains. A lot of men have the title of Reverend. I would fear anybody taking that title. Sometimes people call me Reverend Smith and I cringe. They write that on the book on the letters and I cringe, I know that they don't know me when I get these letters, Reverend Charles Smith or the Reverend Charles Smith or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 I know, hey, they don't know me cause I don't consider myself Reverend at all. There's nothing reverend about Chuck Smith. The Bible says we are to reverence God's holy name. That I do. But I don't want anybody reverencing my name or me. God help me. I'm a sinner just like you. I need the grace of God just like you.

한 사역자 모임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한 것에 대해 그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에 칼라를 뒤로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그 직함을 취하는 것을 보면 나는 두렵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척 (존경하는) 목사님’ 이라고 부르면 나는 갑자기 몸이 움츠러 들기도 하고 또 편지에다 ‘친애하는 척 (존경하는) 목사님’ 혹은 ‘ 가장 훌륭한 척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호칭을 쓸 때면,, 나는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도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나 자신을 대단한 (존경하는) 목사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척 스미스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존경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존경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이나 혹은 내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이고 여러분들과 똑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In a great house, though, many vessels, some gold, some silver; some wood, some clay. Some for honor, some for dishonor.” Kingdom of heaven is like a woman hiding leaven in three measures of meal until it permeates the whole lump. Leaven is always used in an evil sense in the Scriptures, the leaven of sin, the leaven of hypocrisy. It’s a type of sin because it multiplies by putrefaction. It does make an excellent type of sin, which multiplies by putrefaction. And so the church, the leaven within it until it leavens the whole lump, the evil influences that have their way of permeating through the whole church.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천국비유는,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의 누룩, 또는 위선의 누룩으로 말입니다. 죄는 부패함으로 배가 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누룩은 부패하여 배가 되는 죄의 훌륭한 모형입니다. 교회에 경우에 있어서, 온 덩이에 누룩이 퍼지게 된다는 것은, 교회 전체에 악한 것이 침투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unto a man who planted wheat in his field, and at night the enemy came and sowed the tares. So that the servants, as it began to grow said, Lord, there are tares going on among the wheat, shall we go out and pull them up? No, He said, let them grow together until the end and then at harvest, take and gather the tares together and put them in bundles and cast them into fire but bring the wheat into my barn. Jesus taught that these evil influences would exist within the church, that they would grow together until the time of the great harvest.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밤이 되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랄 때에 종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기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보이는데 뽑아 버릴까요?’ 하고 묻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숫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영향력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것들은 추수의 때까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The church is not a perfect organization. The church is made up of all kinds of people. And it’s wise for you to recognize that because you can get skinned by people calling themselves Christians almost more readily than anybody else. Not all who say, “Lord, Lord”, are going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nd let’s not be blind or foolish about this. The church is not a perfect organization; it’s made up of all kinds of people.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쉽게 먼저 자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는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장님이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말시다.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니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ank God there is the good. Thank God for the faithful. Thank God for those who are really seeking after God with all of their hearts. And it's because of those we can continue to exist. If it weren't for those, the Lord would have brought judgment on the church a long time ago and it would have been wiped out. But the time will come when judgment will begin. Where? At the house of God. And "if the righteous scarcely be saved, where will the sinner and the ungodly appear?" (1 Peter 4:18). I mean, if the judgment begins at the house of God, what you going to do when you get to San Francisco?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에 선한 분들도 있고, 성실한 분들로 있으며,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오래 전에 교회에 심판이 와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그 때가 곧 올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벧전 4: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다시 말해 볼까요? ‘만일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 저 샌프란시스코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So the church is not a perfect organization. And those that are spending their lives in ministries to perfect the church so that the Lord can come again are due for a great disappointment, because in a great house there are all kinds of vessels, some are for honorable purposes, some for dishonorable purposes. Those of gold and silver were for the master of the house, that he might eat and drink out of these vessels of gold and silver. These were those that you love to use and entertain with when company comes. You bring out your best silver and your best golden cups and bowls and all, vessels of honor, want to display.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여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아마도 크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는 모든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들은 귀한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며 또 어떤 그릇들은 천한 용도로 쓰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주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인의 먹고 마시는 식기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들이며 동료들이 올때 그들을 대접할때 사용하는 그릇들일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은 그릇과 가장 좋은 금잔과 대접등등의 가장 훌륭한 그릇들을 보이기 위해 가져 나올것입니다.

But in the same house, big house, you got so much garbage it's got to go out. So you've got a clay pot over there in which you dump all the garbage, vessel of dishonor. You throw the trash in it; you carry the trash out with that, all kinds of vessels, some of honor, some of dishonor. We are in this great house. We are a vessel.

그러나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갖다 버릴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쓰레기를 담아 버릴 이 진흙단지에는 바로 천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됩니다. 쓰레기를 여기다 담을 것이고 모아진 후에는 갖다 버리게 될 테니까요. 온갖 종류의 그릇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우리는 이 커다란 집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What kind of a vessel am I? Am I a vessel of honor that is fit for the master's use? How can I be? First of all, I've got to separate myself from those impure doctrines and men who are espousing the impure doctrines.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정말 주인이 쓰기에 적당한 귀한 그릇일까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불결하고 이상한 교리로부터 멀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과도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If a man will purge himself from these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21),

These what I often call sterile doctrines. You say, well, nothing's really wrong with that. Sounds a little weird but doesn't hurt anybody. Oh yes it does. So often there are doctrines that are being promulgated that the effect of the doctrine is sterilization. When you start to embrace it, it sterilizes you so that you are no longer fruitful, doctrines that get the people all introspective, all into themselves.

이러한 것들을 나는 빈번히 쓸모없는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뭐 실제로 그것에 잘못 된 것이 없고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찌 모르겠습니다. 오, 그것은 해를 끼칩니다. 빈번히 어떤 가르침이 발표되고 그 후에 그 가르침은 성과 없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불임중에 걸리게 하여 열매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보통 자기 내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Demon, demon, who's got the demon? You know, and they have these parlor games where they cast the demons out of each other, lust and gluttony and lethargy and all of these demons that are hovering around and possessing the believers, you know. So we're going to have a casting-out party tonight. Come on over, we're going to cast demons out. And so a person yawns and says, Oh oh, did you see him yawn? We'd better cast the demon of sleepiness out of him. And if you burp, man, hands are laid on you, even the gluttony demon has to go. Purge yourself from these things. They're not profitable. Purge yourself from these things.

귀신,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서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담화실 게임도 합니다. 정욕과 탐식과 무기력함과 같은 귀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다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귀신 쫓는 시간을 갖을 테니 꼭 오십시오. 다같이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아, 지금 이 형제님이 하품하는 것 보셨습니까? 졸음귀신을 내쫓아야겠군요.” 또 어떤 사람이 트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탐식의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기 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부터 자신을 멀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것을 제하십시오.

And you will be a vessel unto honour, sanctified (2:21),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2:21),

That is, God will set you apart. God will anoint you and you will be fit for the Master's use, then God will begin to use you. And that really is what it's all about isn't it; to be used of God to touch some life, to be used of God to share His love, to be used of God as an instrument. That's what life is all about.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지 조사한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할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fit for the master's use, as He prepares us unto every good work
(2:21).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1).

God begins to prepare you through the word, through prayer, through your experiences; they're all a part of God's necessary preparation. Paul wrote to the Ephesians and said, "You are His workmanship," God's working in you. Created together unto, created together unto Christ Jesus. No, "created together in Christ Jesus unto the good works that God has before ordained that you should accomplish" (Ephesians 2:10). God has already foreordained that service that He wants you to accomplish for His glory, but He has to, first of all, work in you, preparing you.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엡 2:10).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해야 할 봉사를 위하여 택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So the experiences that I go through, the hardships, the difficulties, the testings, the trials, the sorrows; they're all a part of God's necessary preparation. As He is seeking to prepare the vessel to be used by the Master, as He empties me of myself, that He might fill me with His fullness that I no longer live for my own glory but I live now for His glory. That I serve Him in such a way that it brings glory to Him.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Matthew 5:16). "Prepared unto every good work."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볼 때, 내가 겪었던 경험과 고생과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과 슬픔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주인이 쓰시도록 그릇들을 준비하실 때, 주님이 나를 비우심은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드러지도록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22절,

Flee also [Timothy] youthful lusts (2: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22);

How many have been injured, destroyed because of youthful lusts? Flee them. Great example is that of Joseph as he was serving in the house of Potiphar. And the wife of Potiphar fell in love with him, sought to entice him to come into her bedchamber, daily was flirting, enticing. Until finally one day, when the rest of the servants were out, she grabbed hold of him, want to force him into the bed, and he wriggled free leaving his coat

in her hand. And he ran out naked, fleeing youthful lusts. Smartest thing he could do. There are some times when the wisest thing you can do is run. “Flee youthful lusts:”

청년의 정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파멸했습니까? 그것들을 피하십시오. 좋은 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연정을 느끼자 그를 자기 침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침내 어느날 모든 하인들이 나가고 없을 때, 그녀는 그를 붙잡고 자기 침대로 끌어 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다 그녀의 손에 자기 겹옷을 남기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쳐 청년의 정욕을 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총명한 처사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22절,

but follow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with those that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2:22).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2:22).

And so those that are calling from a pure heart. What are the thing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그 특성들이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23절,

But foolish and unlearned questions avoid, knowing that they are only designed to create strifes (2: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23).

There are a lot of lead questions that are only designed to create an argument. A person has a position that they want to espouse and so they come to you with a question. Why don't you baptize people immediately when they're saved? You see, they believe that a person really isn't saved until he's baptized. They want to get into an argument with you over baptism. Now he said avoid these questions. All they are intended to do is create strife. They're not really wanting to learn, they're only wanting an argument. They want to get in a fight

논쟁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기를 원하는 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질문을 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 받자 마자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사람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침례에 대하여 논쟁을 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시비하자는 것이지 참으로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논쟁하기를 원하며 싸우려고 할뿐입니다.

The servant of the Lord must not strive (2:24);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2:24);

Mustn't get into these arguments.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but be gentle unto all men, and apt to teach, and patient (2:24),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24),

Ready to teach but you got to be patient because in a great house, there are all kinds of vessels.

기억하십시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기에 앞서 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In meekness instructing those that oppose themselves; if God peradventure will give them repentance unto the acknowledging of the truth (2: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1:25);

So you hope that God will work. You take your time. You're patient. You teach, teaching in meekness and just hoping that peradventure their hearts will be opened, that they might turn to the truth.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가르칠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 것이니까요.

And that they may recover themselves out of the snare of the devil, who are taken captive by him at his will (2:26).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2:26).

Oh, what an important verse. This verse teaches us that there are certain people who have been taken captive by Satan. They are bound by Satan, they are his captives. Now we have the power, the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to deliver them from the captivity of the enemy, those who Satan holds, he holds by usurped power. You see, Jesus died for all men. He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That work of redemption was complete for all mankind. It covered every man's sin. Jesus redeemed the world back to God; however, Satan is still holding captive many people. But that hold that he has is a usurped authority that he has taken, but as long as the people are consenting to it, they remain his captives. And they consent to it because he has blinded their eyes to the truth of their own condition.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그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강압적으로 빼앗아 붙들고 있는, 즉 원수에게 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구속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지만, 사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쥐고 있는 강탈한 권세는 사람들이 그의 감옥에 있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에 동의하는 동안만 실효를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진실에 대해 눈이 가리워진 자들 이기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Paul said "the god of this world having blinded their eyes that they cannot see the truth" (2 Corinthians 4:4). So what a sad predicament the unbeliever is in as he is bound by Satan, a captive of Satan, but his eyes are blind so that he doesn't even realize the truth of his own condition. He doesn't know how precarious is his position for Satan has blinded his eyes. He's prejudiced against the Lord. Satan has blinded his eyes concerning the truth in Christ Jesus. Oh, I don't believe the Bible, all kinds of contradiction all in it. You hear that all the time.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고후 4:4). 믿지 않는 이들이 진리에 대해 눈이 가리워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단의 포로로 그에게 매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반대하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아, 난 성경을 안 믿어, 그 안에 있는것은 모순 투성이야.’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I always say show me one. Oh well, there are lots of them. Well then, show me one. Oh it's filled with them, you know. I don't have to. It's full of them, you know. Well, tell me one. I heard someone say that one tim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ir eyes; they can't see the truth. Sad place to be that we might take them from the captivity. Is it possible that we can take them from the captivity?

나는 항상 하나만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모순을 하나만 보여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지만, 나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는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포로된 그들을 끌어내야할 슬픈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 감옥으로 부터 끌어낼 수 있을 까요?

Jesus sai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John 8:32). We can in love teaching them, instructing them, bring them the truth which can set them free. We can through prayer open their eyes to see the truth. We can bind that work of Satan that is blinding their eyes, that is keeping them from knowing the truth and we can deliver them from this captivity. Surely we ought to be engaged in this warfare. Enduring hardness as a good soldier. Getting out in the trenches. Fighting against the enemy. Delivering these who he has taken captive. Setting them free through the truth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 8:32).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알려 줄수 있으며 또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로 그들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들의 가려진 눈이 진리를 향해 열리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의 눈을 가렸던 사단의 일을 묶을수도 있고그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며 적진을 뚫고 그들과 싸우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내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Vessels of honor used by the master to bring His love and grace to a needy world around us. God help us.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그릇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함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Jesus, we thank You tonight for Your word, for Your help, for Your strength. And now, Lord,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our hearts richly through faith, that we being rooted and grounded may be able to comprehend more fully what is the length and the breadth and the depth and the heigh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for us. And Lord, we wish tonight to present our bodies to You, as living sacrifices, yielding to You our hands, our mouths, our feet, that You might use them, Lor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bring Your love to a dying world. In Jesus' name, Amen.

예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도움 그리고 강건케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머물러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운데 뿌리를 내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충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이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richly bless you, fill you with His love and with His word and with His truth, guide you in all things. Make this a glorious week as we begin it in the word, founded on the truth. May you grow up in Christ, maturing and growing and developing until the life is being used by the Master in a great way, bringing glory and pleasure to Him. In Jesus' name.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치게 축복하시되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사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주간에 시작한 말씀공부가 진리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발전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시다.